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NEST

가제 : 동지

저자 : Cynthia D'Aprix Sweeney

출판사: Ecco

발행일: 2016년 4월

분량 : 353 페이지

장르 : 소설



아버지가 네 남매에게 남긴 막대한 신탁자금, 수령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멜로디, 베아트리체, 잭, 그리고 레오. 아버지가 이 네 남매에게 남긴 ‘동지’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신탁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들이 시작된다. 플럼스 가의 네 남매는 아버지가 막내 멜로니의 40세 생일 전까지 손댈 수 없도록 설정해 둔 이 돈만 기다리며 각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무더운 여름,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사촌 결혼식에 플럼스 가문의 일가친척들이 다 모인 그 날 레오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 모두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탁자금이 위태로워지면서 골치아픈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문제는 술과 약 기운이었다. 그 날 결혼식에 온 레오는 코카인이 선사한 몽롱한 기분에 마티니까지 더한 상태에서, 새카만 눈동자와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젊은 웨이트리스를 발견했다. 손님 사이를 돌아다니며 샴페인 잔을 돌리던 그녀의 이름은 마틸다 로드리게스. 마틸다의 꿈무늬를 쫓아 주방까지 따라간 레오는 몇 마디 대화로 그녀의 꿈이 가수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콜롬비아 레코드사에 친구가 많다는 말로 그녀에게 솔깃한 유혹을 던진다. 마틸다는 또래 친구들 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숙하고 잘생긴 레오의 외모와 가수의 꿈을 펼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는 기대감에 그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봤더라면, 그가 벽을 손으로 짚지 않고 선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고 잠깐 주춤했을 때 멈춰야 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마틸다는 이것을 일약 스타가 될지도 모를 절호의 기회로만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레오의 포르쉐를 타고 마틸다의 데모 음반을 들으며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문제투성이지만 영원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 가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재치 있게 그린 소설

‘동지’ 신탁자금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드디어 손에 들어오는 시점에, 자신이 일으킨 사고 뒤 처리를 위해 큰 돈이 필요했던 레오. 그는 결국 신탁 자금 관리인이자 아버지가 지정한 수령일 이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진 프란시스를 설득해 형제들 몰래 돈에 손을 대고 만다. 교통사고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레오가 퇴원하는 날, 나머지 세 남매도 한 자리에 모이고 그 엄청난 사실을 모두 알게 된다. 하나 같이 자신이 일으킨 문제들을 견디며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애타게 기다리던 남매들. 곤경에 빠진 이들 앞에 가족의 잊혀진 옛 사건들을 비롯해 레오의 무지막지한 이기심과 부주의함이 가져온 재앙과도 같은 결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네 사람이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자동차 사고로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어린 웨이트리스 마틸다, 그녀를 사랑하는 이라크전 참전 군인, 월드트레이드센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은퇴한 소방관과 그가 키우는 애완견까지, 작가는 네 남매와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에 관한 깊은 통찰을 이 작품에 담았다.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그러나 가족이기에 영원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 생기는 일들을 재치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저자 소개>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Cynthia D'Aprix)는 뉴욕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위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WHEN THE NIGHT COMES

가제 : 밤이 찾아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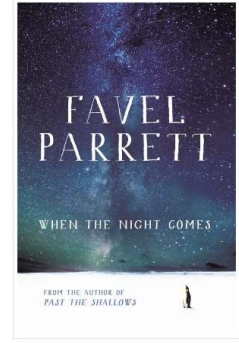
저자 : Favel Parrett

출판사: Hachette Australia

발행일: 2014년 8월 2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호주 남쪽의 섬 태즈메니아와 남극, 그 사이를 오가는 빨간 배와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Past The Shallows》를 쓴 호주 출신 작가가 호주 대륙과 떨어진 섬 태즈메니아와 남극, 그리고 두 곳을 오가는 배 한 척을 무대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손길과 우정을 잔잔하게 그린 신작을 발표했다. 실제로 ‘호주 국립 남극 연구탐사 사업’에 사용되다가 1980년대 중반 임무를 마친 쇠빙선 ‘벨라 단’호가 주인공 중 한 사람처럼 소설의 중심이 된다. 엄마, 남동생과 함께 호주 본토를 떠나 태즈메니아로 도망치듯 이사 온 어린 소녀 아이슬라. 그녀는 학대를 일삼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려고 떠나왔지만, 태즈메니아에는 아이슬라가 그리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회색빛 거리, 그 거리와 꼭 닮은 집, 과거의 삶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까지, 아이슬라와 동생은 늘 슬픔에 젖어 있는 엄마를 보며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동생의 친구까지 차 사고로 별안간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기운마저 다 빠져버리고 만다. 아무런 미래도 꿈꾸지 못하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아이슬라의 삶은, 어느 날 항구에 빨간색 배 한 척이 나타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우울한 마을 풍경 속에서 화사한 색이 눈길을 사로잡은 예쁜 배 위에서 어떤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바라보던 아이슬라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 남자는 ‘벨라 단’호에서 선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보’였다. 덴마크 사람인 보를 비롯해 선원들 중에는 덴마크 출신이 많았다. 보와 아이슬라는 인사를 건네고, 조금씩 친구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레 집에도 놀러 오게 된 보가 처절한 외로움과 과거의 기억에 움츠리고만 있던 엄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조용하기만 하던 아이슬라의 집은 선원들이 자주 찾아오는 떠들썩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유쾌한 이야기와 만남 속에서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아이슬라는 보가 들려주는 선원 생활과 벨라 단 호가 하는 일,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세상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다. 남극의 가장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 신기한 새 바다 제비와 남극에 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는 배의 임무, 그리고 보의 고향인 덴마크에서 그가 보낸 어린 시절과 아버지와의 추억까지, 아이슬라는 따뜻하고 자상한 보에게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키워간다.

희망을 볼 수 없던 외로운 소녀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준 선원,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

그러나 아이슬라의 엄마가 결국 괴로운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면서 보와의 관계는 어느 지점 이상 진전되지 못한다. 보와 아이슬라의 가족들은 두 번의 여름을 함께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만, 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두 번 다시 만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절망만을 느끼던 아이슬라의 가슴을 희망과 행복,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채웠다. 바다 위에서의 고독한 생활, 배를 사랑하지만 오랜 선원 생활로 뿌리 내릴 곳과 가족을 꿈꾸던 보 역시 외로운 소녀에 꼭 필요했던 든직한 아버지의 역할을 짧게나마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껏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는다. 아이슬라는 보의 조언대로 고등학교에서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결국 과학자가 되어 마침내 남극으로 향한다.

남극, 덴마크, 태즈메니아 섬의 세밀하고 아름다운 묘사는 마치 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아이슬라와 보 두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각자의 꿈과 삶의 의미, 그리고 서로에게서 희망과 위안을 찾아 각자 찾아가는 미래가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저자 소개>

페이블 페렛(Favel Parrett)은 2009년 ‘호주 작가협회’ 멘토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여러 매체에 단편을 발표했고 첫 장편 소설 《Past The Shallows》로 2012년 ‘호주 도서협회 올해의 신인작가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WEDNESDAY GROUP

가제 : 수요일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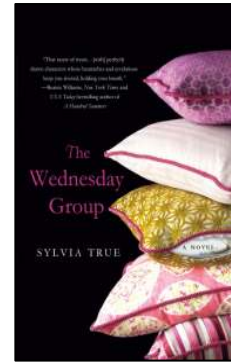
저자 : Sylvia True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5년 3월 2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다섯 여자의 수요일 저녁 모임, 공통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녀들의 우정
겉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썩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여자 다섯 명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한 자리에 모인다. 누구나 꿈꿀 법한 이상적인 삶, 누군가는 아주 시기심을 느낄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이 다섯 명의 여성은 각자 교육 수준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르다.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다. 인생의 목표와 관심사도 다양하며, 성격도 각양각색이다. 무엇이 이들을 그룹으로 묶었을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다섯 명 모두가 떠 안게 된 문제는 바로 남편이 섹스 중독자라는 사실이다. 게일, 한나, 브리짓, 리지, 플라비아는 의학적으로 섹스 중독 진단을 받은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황당함,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집단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색적인 공통점을 가진 배신 당한 아내들, 그들의 끈끈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보스턴에서 명망 있는 판사로 활동 중인 게일. 그녀는 신학 교수인 남편이 최근 만나고 있는 애인으로부터 계속 편지를 받고 있다. 남편은 맨정신으로 9개월째 대학원생들과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다. 가정 주부인 한나는 공중화장실에서 남편이 성매매 남성과 관계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주립병원에서 정신과병동 간호사로 일하는 브리짓은 남편이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알고보니 남편은 온라인 채팅과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에 중독된 남자였다. 고등학교 교사인 리지의 남편은 포르노 중독자로, 아내와의 섹스에는 아무 관심도 없을뿐더러 먼저 다가오는 리지를 강력히 거부하기만 한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플라비아는 누군가가 가져다 준 신문 기사를 보고 남편이 지하철에서 어느 십대 소녀를 성추행 하다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은 법정에 설 처지에 놓였고, 그녀는 남편 곁에 남을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한 다섯 명의 아내, 그리고 이들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문제가 많은 젊은 심리학자 캐서린이 만나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한다. 남편이 섹스 중독자라는, 입에 담기도 창피한 공통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배신감과 거짓으로 멎은 마음을 치유 받는다.

섹스중독 진단을 받은 남편과 살아가는 다섯 명의 아내, 각자가 선택한 극복 방식과 내면의 힘

살아온 과정과 배경이 모두 다르듯, 다섯 명의 여성은 같은 고통을 가졌지만 극복해 나가는 방식은 제각각 이다. 그룹 치료 초반에는 먼저 결혼 생활에 찾아온 이 커다란 문제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힘겹게 노력한다. 남편은 일종의 ‘질병’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물론 이 노력이 정신적인 고통을 금세 사그라들게 하지는 않지만, 아내들은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조금씩 희망을 찾아간다. 수치스러움, 분노, 거부당한 상처, 죄책감, 통제 불능의 불안감을 서로가 잘 이해하기에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수요 모임은 그녀들에게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

작가는 섹스 중독자와의 결혼 생활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굳건해지는 우정을 보여주고, 그 엄청난 감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섯 명의 여성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깊이 있게 통찰한다.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 주인공들 모습과 그들이 보여주는 내면의 힘은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저자 소개>

실비아 트루(Sylvia True)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위 작품은 그녀의 소설 데뷔작이다.

제목 : NOT WORKING

가제 : 소용없어

저자 : Lisa Owens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소설



정말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한 여성, 독특한 형식의 워트 넘치는 소설

클레어는 어느 날 문득 사무실 책상에 있는 물건을 닦치는 대로 집어 삼키고 싶은 욕구가 강렬히 들더라고 친구에게 고백한다. 압정이며 접착용 점토며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삼키고 싶었다고 말이다. “헛바닥에 클립을 올려놨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클립을 뺀고 그만 둔다고 말하러 사장실로 갔지.” “사장은 뭐래?” “휴가 중이라 2주를 더 기다려야 했어.” 그렇게 직장을 막 그만둔 클레어 플래너리. 일을 그만둘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편안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녀의 결단을 굉장히 불안해했다. 클레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 단지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뿐. 클레어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잘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은 회사를 다니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압박감 속에 목이 죄는 느낌이고,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할머니께 털어놓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괜찮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가 생각 나는구나... 물론 그 때 난 이미 여덟 살도 채 안 된 자식이 넷이나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지 않니, 너희들 나름대로 끔찍한 뭔가가 있겠지.”

작가는 소소해 보이는 클레어의 일상생활의 여러 순간을 짧게,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녀가 느끼는 삶의 혼란스러움을 때로는 우습게, 때로는 날카롭게 묘사한다. 모든 에피소드에는 소재목이 달려 있는데, ‘월플라워’라는 제목의 이야기에서는 클레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어느 날 카키색 점퍼에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단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나, 대뜸 집주인이냐고 묻고는 클레어네 창문에서 뺨어 나온 꽃 부들레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이웃집 사람인지, 관청에서 나온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묘한 남자는 부들레아는 잡초고 해로운 식물이라고 잔소리하고, 급기야 자기가 직접 없애겠다고 나선다. 겨우 그를 진정시킨 클레어는 함께 사는 루크에게 전화를 걸어 어서 와 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그는 일이 바빠 당장 올 수 없다고 하고, 클레어는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부들레아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한다.

단편적으로 그러나 세밀하게 묘사한 일상의 단면들, 그 속에 가득한 삶의 혼란과 고민들

‘지하철’에서는 날씨를 마치 아는 친구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는 세 여인의 대화가 그대로 옮겨진다. “아니 글썄, 내 ‘10월까지의 스타킹 안 신기’ 규칙이 한방에 깨졌다니까.”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옆에 두 친구는 머리를 끄덕이며 역시나 나일론 스타킹 신은 다리를 까딱 댄다. ‘다른 여자’에서는 회사에 다니시는 엄마가 점심시간에 클레어에게 걸어, 간밤에 회사 접수처에 있는 다이앤이라는 여직원이 꿈에 나왔는데 꿈에서도 다이앤이 맞나, 헛갈렸다고 혼자 깔깔댄다. 이어 엄마는 사실 어제 길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고 다이앤인줄 알고 인사를 건넸는데 가까이 다가서니 그녀가 아니더라며 큰 소리로 웃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댄 사람으로 착각해서 기분 상했을까?”하고 클레어에게 되묻는 엄마. 클레어는 평소에 엄마가 클레어에 대해 언급할 때면 늘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흑인 여자’라고만 묘사하던 걸 기억하기에, 이렇게 쓰아붙인다. “누가 기분 나빴냐는 뜻이야? 꿈에 나온 사람, 아니면 길에서 엄마가 인사한 여자?” 클레어가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 다른 여자 말이야, 부르고 보니 다이앤이 아니었던 사람. 그 쪽은 내가 자기를 다른 여자와 혼동했다고 생각했을거야.” 엄마는 뱅뱅 돌려 말한다. “다른 유색인종과 헛갈려서 기분 나빴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클레어가 꼬집자, 엄마는 되려 클레어를 나무란다. ‘애는, 유색인종이라니. 그리 공손한 표현은 아니구나. 요즘에도 그런 말 쓰니?’

회사를 그만 둔 클레어는 급기야 늘 등직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남자친구까지 떠밀어내고, 엄마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서로 말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된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이 대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극도로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바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위트와 풍자, 역설적인 상황들이 가득한 독특한 분위기와 형식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일상이 저자의 날카로운 위트와 감정선으로 날날이 밝혀지는 이 소설은, Ben Lerner나 Miranda July, Lena Dunham 같은 저자들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리사 오웬스(Lisa Owens)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출판업계에서 6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이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글쓰기 석사를 취득했다.

NON-FICTION

제목 : FIND A WAY

가제 : 길을 찾아서

저자 : Diana Nyad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상어와 해파리의 공격 속에 바닷속을 50시간 넘게 수영한 다이애나 니아드, 생생한 도전의 기록

64세의 나이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무려 177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하는데 성공하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다이애나 니아드. 그녀가 그 엄청난 도전과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2013년 9월에 이룩한 그 놀라운 성공은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 만에 이룩한 것으로, 쿠바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안까지 두 번의 낮, 두 번의 밤을 꼬박 새우며 53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영한 결과였다.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그 도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그녀의 끈기와 용기에 압도되었다. 다이애나의 이 도전과 성공 속에는 실패를 거듭해야 했던 그녀의 극적인 인생이 집약되어 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에 몰입하게 했을까? 다이애나의 고달팠던 삶과 불굴의 용기, 끊임없는 도전의 이야기가 그녀 특유의 맹렬하고도 유쾌한 말투 그대로 이 책에 담겨 있다. 키웨스트 해안에 도착해 숨을 고르자마자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는 전 세계를 향해 남긴 세 가지 메시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쫓는 데 나이는 중요치 않으며, 수영이 고독한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팀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녀 인생 전체를 이끈 중심이기도 했다.

카리스마 넘치지만 폭력까지 서슴지 않던 가짜 예술가 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두 번씩이나 버림 받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다이애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성공했다. 스물여섯이던 1975년에는 뉴욕에 입성했고 맨해튼 곳곳을 누비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남극부터 아프리카 정글까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야생의 스포츠를 체험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이애나는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그리고 스물 아홉, 첫 번째 장거리 수영에 도전했다. 쿠바에서 플로리다 구간이 목표였지만, 42시간 동안 127 킬로미터까지 수영한 후 코스를 이탈하는 바람에 중단해야 했다. 상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철망 속에서 수영한 것이 문제였다. 철망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낸 불굴의 용기

서른 살 생일을 맞아 다시 시작한 두 번째 도전에서는 상어를 피하기 위한 철망이나 어떠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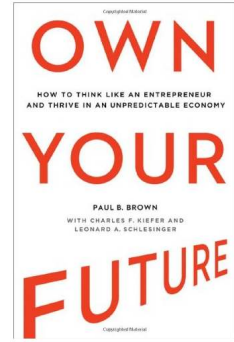
호 장비 없이 맨하탄 섬에서 바하마와 플로리다 사이 어느 지점까지 165 킬로미터의 거리를 수영하여 세계 최고 장거리 바다수영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다가, 2013년 그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무엇이 30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64세에 이룰 수 있게 했을까? 20대, 30대에는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지만, 60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인내심, 그리고 통찰력, 불굴의 의지가 다이애나의 무기가 되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쓰라린 실패로 키운 내면의 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다이애나는 20대에는 분노를 품고 수영했지만, 60대에는 경외심을 품고 수영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 책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자신의 고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 성공이 특별한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과학계, 의학계,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정신, 따뜻한 담요 속에서 숨어서 우울하게 지내는 삶 대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던 그녀의 의지는 쉽게 나약해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다이애나의 말처럼, 상어와 끊임없이 덤벼드는 해파리 속에서 65곡의 노래를 번갈아 머릿속으로 부르며 끝끝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녀의 성공은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열정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다이애나 니아드(Diana Nyad)는 장거리 수영 세계기록 보유자로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진행해 왔다. 여러 권의 저서를 내고 ‘테드(TED)’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차례 강연을 했다.

제목 : OWN YOUR FUTURE
가제 : 미래를 가져라
저자 : Paul B. Brown 외 2인
출판사: AMACOM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일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는 생존도 발전도 불가능한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방법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전통적인 조언들은 대부분 상사가 하는 일을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 말에는 업무와 산업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는 아주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수시로 즉각 변화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직업이나 업무, 산업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회사나 일에 대한 무직한 충성심에 큰 점수를 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세 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토록 불확실하고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이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의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을 본보기로 삼아 성공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었다.

행동할 것, 학습할 것, 쌓을 것, 반복할 것. 이 네 가지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다. 머릿속으로 완벽한 직장과 업무를 그리기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단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고 터득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평가한 결과와 교훈은 잘 정리해서 중요한 지식으로 축적하고, 원하는 방향을 향해 다시 한 번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그저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산업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성공을 그렇게 단순히 '계획'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세 저자는 방대한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지치지 않고 도전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취업 시장에서도 각자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성공한 각 분야의 기업가들이 가진 공통분모, 단순 명쾌한 성공의 열쇠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과중한 업무의 압박과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어느 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정함, 그리고 수도 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경쟁자들로 인해 괴로워한다. 이 상황은 하루 이들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겪는 것이니 적응할 수 있다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준비하면 된다고들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자료는 찾기 힘들다. 세 저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회사를 두 곳 이상 성공적으로 키워낸 기업가들이 의외로 단순한 접근법을 통해 성공을 일궈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들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무작정 달려가지도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 후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장애물을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잠깐의 후퇴를 이후 더 큰 성장의 연료로 활용했다. 흥미를 잃거나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황에 처하면 너무 오래 질질 끄는 대신 신속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려내서 재활용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 위에서 두려움에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짱달싹도 못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자들이 찾아낸 성공의 발판이었다. 다정다감한 선생님보다는 엄한 선생님을 닮은 이 책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무조건 피하고 보는 태도와 머릿속으로 끝도 없이 생각만 하는 현대인의 버릇을 날카롭게 꾸짖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 감동과 자극을 주는 실제 사례들은 구직자나 경력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현재 일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업무 수명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저자 소개>

폴 B. 브라운(Paul B. Brown)은 <뉴욕타임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기고가로 <비즈니스 위크>, <프브스> 등에도 여러 편의 글이 실렸다.

찰스 F. 키퍼(Charles F. Kiefer)는 체계적인 학습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주는 업체 'Innovation Associates'의 대표이다.

레오나드 A. 슐레진저(Leonard A. Schlesinger)는 밥슨 대학 총장을 지낸 후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WISDOM

가제 : 지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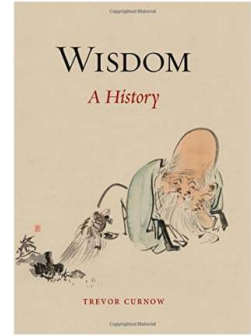
저자 : Trevor Curnow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5년 4월 2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역사



여러 시대, 지역, 종교, 문화에서 추구하고 찾으려 했던 '지혜', 역사 속 지혜의 다양한 모습

지혜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지혜롭다'고 평가하는가? 지적인 능력과 지혜를 구분 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혜에 관한 이러한 의문에도 나타나듯이,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인류 전체를 매혹시킨 주제다. 먼 옛날의 학자들이 격언과 속담, 우화라는 형태로 지혜를 전하려 했다면 현대 사상가들은 지혜의 본질을 파헤친다. 그렇게 지혜의 실체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 없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며, 학자들은 지혜의 정의를 내리려고 늘 애쓰지만 오늘날까지도 '지혜란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 정의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사랑, 죽음 등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 힌두교에서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 사라스바티, 그리스로마 신화의 아폴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지식과 문화의 신 오딘처럼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는 지혜에 신성한 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지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정리했다. 고대 이집트 사회부터 중세 유럽, 현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대와 문화권에서 찾을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특히 속담과 격언에 주목하여 지혜를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소개한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며 탄탄한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1장 '신과 여신의 지혜'에서는 다양한 문화, 종교, 사회에서 현명한 존재로 정의했던 신과 여신들은 어떤 모습과 성격, 행동을 지녔는지 살펴보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최근까지 존속한 종교나 문화에서 시대에 따라 그 신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추적해본다. 2장 '신화와 전설 속 지혜'는 여러 시대에 등장한 신화, 전설 속에서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많은 등장인물을 통해 그려진 지혜의 모습을 정리해본다. 3장 '역사 속 지혜'는 인류 역사에서 특히 지혜로운 인물로 여겨진 사람들을 소개한다. 고대 그리스의 일곱 현인, 중국의 죽림칠현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지혜로운 통치자로 평가되는 10명의 왕들, 아즈텍 통치자 네사우알코요틀, 이슬람 신비주의자들로 구성된 수피교의 다섯 현인 등 다양한 현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혜로움’에 관한 수많은 고민, 신화, 문학, 종교, 철학 등에 담긴 지혜를 총정리한 책

4장 ‘문학 속 지혜’에서는 지혜를 주제로 삼은 문학과 지혜를 직접적인 글로 표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문학작품, 문학 장르를 폭넓게 살펴본다. 5장 ‘점술과 지혜’는 현상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점술의 특성상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초자연적인 존재의 응답이라는 형태로 대답이나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 손금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고대 과학이나 현상의 관찰, 경험을 토대로 삶의 지혜를 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 6장에서는 ‘철학과 지혜’를, 7장에서는 ‘신비주의, 마법과 지혜’를 설명하고 이어지는 8장은 속담과 격언에 담긴 지혜를 상세히 살펴본다. 9장 ‘현대 사회와 지혜’에 이은 저자의 후기에는 속담, 시 구절, 정치인과 철학자, 소설가, 극작가, 종교 지도자, 작가들이 남긴 말 등 지혜에 관한 100편의 짙막한 문구가 정리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각자에게 와닿는 지혜로운 생각을 다양한 출처에서 찾을 수 있다. 지혜란 무엇인지,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통찰이 가득한 책으로, 끊임 없이 지식을 추구해 온 인류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저자 소개>

트레버 커나우(Trevor Curnow)는 영국 컴브리아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Oracles of the Ancient World》, 《Wisdom in the Ancient World》가 있다.

제목 : WOMAN CODE

가제 : 우먼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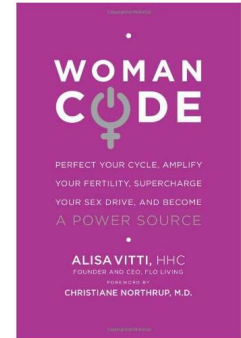
저자 : Alisa Vitti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4년 5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



불규칙한 생리주기, 불임, 부인과 질환을 해소하고 성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 건강법

현재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극심한 생리통이나 불규칙한 생리주기, 갑상선과 부신에 발생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소리 없이 전 세계 여성들의 몸을 덮치는 호르몬 불균형이다. 내분비계의 이상 증상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 문제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여성들을 괴롭혀온 문제도 있지만 과거 세대는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제들도 많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일반화되고 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불임인 시대, 아직도 여성이 받는 수술의 1위가 자궁 절제술인 시대에 수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현대 의학은 그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직접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고통을 겪어본 여성의 입장에서 호르몬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먹는 음식과 생활방식 변화로 몸을 회복시키고 본연의 힘을 되찾는 방법이다.

저자는 생리 주기나 임신 문제, 우울증, 성욕 감퇴 등 호르몬 변화로 발생한 문제를 약이나 항우울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먼저 여성과 호르몬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들어 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5단계 실천 단계를 소개한다. 먼저 우리 몸의 내분비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여성의 몸에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고질적인 부인병을 예방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따라, 저자는 호르몬 균형 회복을 위해 마련한 '우먼코드'라는 5단계 실천법을 차근차근 소개한다. 1단계 '혈당 안정', 2단계 '부신을 더욱 튼튼하게', 3단계 '배출 기관을 건강하게', 4단계 '생리주기 관리', 5단계 여성 에너지를 이용한 치유'까지 각 단계는 내용에 따라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요리법, 식단, 운동 등 실용적인 정보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여성 건강의 핵심인 호르몬, 인체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한 알차고 효과적인 실천법

책 전체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3~4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1부 '우먼코드 해독하기'는 생리주기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현 상태를 짚어보고 임신과 불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제 2부 '우먼코드 실천법'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힐링코드'를 찾는 법, 악순환을 깨고 몸을 건강하게 하

는 순환고리를 찾아 자리잡도록 만드는 법, 그리고 우먼코드 5단계 실천법의 단계별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마지막 제 3부 '내 몸을 자가발전소로 만들기'에서는 생식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성욕을 향상시키는 법, 모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찾아 발전시키는 법을 소개한다.

내분비계의 화학적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식생활과 생활 방식,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 호르몬과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소하고 활력, 집중력, 안정적인 기분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책이다. 다양한 증상을 환자 각자의 생화학적 상태와 식생활과 종합하여 해결책을 찾는 저자의 방식은 지난 10여년 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찾고, 수많은 문제를 이겨내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법, 주변 환경과 음식,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접촉하는 독성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 여성 에너지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침대부터 폐경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한 알찬 책이다.

<저자 소개>

알리사 비티(Alisa Vitti)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통합영양연구소에서 공부하고 맨하탄에서 10년째 'FLO Living Center'를 운영하면서 여성 호르몬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 : THE MEMBERSHIP ECONOMY

가제 : 멤버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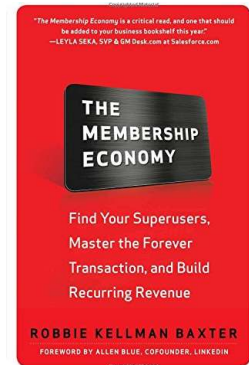
저자 : Robbie Kellman Baxter

출판사: McGraw-Hill

발행일: 2015년 3월 1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소유가 만족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린 시대, 고객을 회원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

산업계는 웹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고객과 교류하기 힘든 시대에 직면했다. 특별한 커뮤니티와 소통의 공간,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등 회원 관리를 중시하는 경제 형태가 현재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업체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컨설팅 전문가인 저자는 고객층을 넓히고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이 멤버십 경제가 산업혁명 이후 산업계에 찾아온 가장 파괴력 있는 변화라 밝히고, 이 책에서 평범한 소비자를 회사의 평생 회원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상품을 '소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며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상품 소유가 넘쳐나는 물건을 관리하고 저장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면서, 기업은 고객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상품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리 고 업체나 다른 소비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이다.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덜어주면서도 공동체에 소속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업체는 회사가 향후 큰 변화를 겪더라도 계속 충성도를 유지하고 관심을 기울여줄 '영원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얻을 수 있다. 멤버십 시스템 특유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객 데이터를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된다.

저자는 한정된 자원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부터 전통적인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견실한 업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결실을 내야 하는 업체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경영법을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더불어 세계적인 거대 기업부터 인터넷 사이트로만 운영되지만 알찬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의 성공 사례와 리더들의 숨겨둔 경영 전략을 공개한다.

소형 온라인 업체부터 견실한 기업까지, 기업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운영 전략

총 21장으로 구성되는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부 '멤버십 경제, 짚고 넘어가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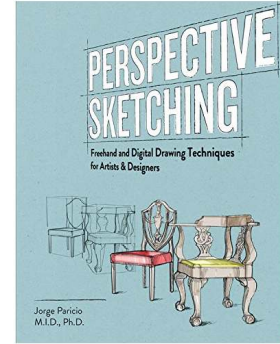
서는 회사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새로운 운영 방식이 왜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성공에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실제로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2부 '멤버십 경제, 전략과 전술'은 멤버십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올바른 조직 만들기, 사업의 맨 아래 단계에서 발생한 이윤이 맨 위까지 효율적으로 이어지고 획득되는 구조 만들기,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보상과 최우수 고객으로 만드는 법, 상품의 가격으로 회원을 관리하되 유연성을 유지하는 법, '공짜' 상품과 서비스를 전략이 아닌 전술로 활용하는 법, 제대로 된 기술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고 이용하는 법, 회원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법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3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운영되는 멤버십 경영 기업'은 온라인 회원 가입 방식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전통적인 멤버십 운영 방식, 소규모 업체와 컨설팅 업체의 멤버십 활용법, 비영리 단체나 전문가 협회, 무역협회의 멤버십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멤버십 경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4부 '멤버십 경제와 변화'는 한 기업이 처음 자리를 잡고 소비자를 만들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보면서 멤버십 경제가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고 각 업체의 특성과 미래 계획을 토대로 어떤 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

새로운 형태의 멤버십 경제를 이미 채택한 여러 업체들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은 터득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다. 온라인 회원 가입이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소비자가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효과, 우수 유료 고객을 최우수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이윤이 알아서 생기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 멤버십 관리로 수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법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하다.

<저자 소개>

로비 켈먼 백스터(Robbie Kellman Baxter)는 컨설팅 업체 'Peninsula Strategies LLC'의 창립자로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략과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

제목 : PERSPECTIVE SKETCHING
가제 : 스케치로 원근법 표현하기
저자 : Jorge Paricio
출판사: Rockport Publishers
발행일: 2015년 1월 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디자인



그림의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좋은 작품의 밑거름이 되는 스케치, 그 기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책

스케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점점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과정이자 작품의 골격을 종이 위에 재빨리 표현해서 3차원 모형이나 컴퓨터 모델의 도움 없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스케치는 그림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처음 떠오른 생각과 컨셉을 포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충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완성된 스케치는 작품이 맨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보통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밑그림으로 끝난다. 따라서 스케치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처럼 실패와 성공의 간격이 큰 편인 스케치 단계도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완성도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노력할수록 끝없이 연마되는 기술과 같다고 설명한다. 인생의 다른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스케치도 연습할수록 늘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도와 축척을 스케치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디자이너, 화가, 그림을 배우는 학생, 혹은 시각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케치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멋들어진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 하나의 스케치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보여주면서 각 단계의 핵심을 짚어간다. 요리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좋은 요리책처럼, 스케치 하나를 끝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와 반드시 해야 할 단계를 일일이 설명한다. 책은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를 찾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원근법으로 다양한 대상의 구도와 축척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부터 3D 모델링 기술 활용법까지

1장에서는 축척을 표현하는 방법과 선형 원근법 이론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려는 대상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부터 생각하고 구도를 잡은 후 대상을 바라보는 눈 높이에 맞게 3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단계별 설명과 윤곽선 그리는 법, 색조와 질감 표현법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2장은 대충 그리는 스케치도 절대 가볍게 아무렇게나 그릴 수는 없다는 조언과 함께 이런

저런 시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스케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관적인 원근 표현법을 연습한다.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적인 관찰법, 컨셉 스케치, 일련의 활동이나 과정을 순서대로 연속해서 표현하는 이야기 스케치, 만화처럼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만 골라서 한 커트씩 그리는 스케치를 다양한 소재로 연습해본다. 마지막 3장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스케치업(SketchUp)'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환경을 표현하는 디지털 스케치 방법을 소개한다.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가 그림의 중심이 되는 대상에만 집중하여 재빨리 표현하는데 주력한다면 3차원 모델링은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아주 정확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으로 직접 그리는 전통적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이용하여 작품의 예술적 특성을 보다 폭넓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원근 표현법에 관한 기존의 책들은 주로 건축물과 풍경에 주목해왔다. 이 책에도 건물이나 고층빌딩, 시골 풍경이 연습 대상으로 나오지만, 그보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들과 각종 기계, 자동차, 자전거, 방 안의 모습, 장식품, 옷이 스케치 대상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저자는 원근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그 각각의 방법이 대상의 축척과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설명한다. 세밀하게 나누어 제공된 스케치 각 단계의 설명은 초보자들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조르제 파리초(Jorge Paricio)는 마드리드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산업디자인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이후 미국과 마드리드에서 유명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구 디자인, 전시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